

또래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정 유 진*

김 광 응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91명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또래 관계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을 중재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고, Pearson의 상관계수와 *t*-test, 단계적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남·여아 모두 또래 관계가 더 친밀할수록,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정적 유대를 가질수록,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의 경우 또래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어머니와 애정적 유대를 갖거나 또래와 공동 활동 혹은 교환적 활동을 하는 것 보다 외로움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는 또래와 교환적 활동을 하는 것이 외로움에 대한 가장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남아의 경우 또래 관계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아동의 외로움에 대하여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중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애정적 유대, 또래 관계, 아동의 외로움

* 본 논문은 정유진의 2005년도 8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정 유 진, 한서대학교 강사,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48-12호

E-mail : jyj529@hanmail.net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가족 수의 감소나 가족 구조의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현상으로 인해 아동의 개별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들이 점점 대두됨으로써 현대의 아동들은 사회·정서적으로 보다 고립되거나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외로움이란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과는 다른 주관적 경험이며, 불유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Peplau & Perlman, 1982). 특히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 중 주로 부모, 형제나 또래 관계에 관련하여 다루어져왔는데, 최근 동향은 아동의 외로움을 또래 관계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또래 관계와 외로움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또래 지위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정영인, 1998; Asher & Wheeler, 1985; Cassidy & Asher, 1992) 이들 연구들에서는 또래 지위를 인기, 거부, 무시, 양면성, 보통집단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통적으로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거나 보통 정도의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아동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되었다. 한편 또래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 또래관계 경험은 임지영(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의 외로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안 또한 느끼게 한다고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은 아동의 외로움은 앞서 살펴본 또래 지위나 수용, 또래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 또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친한 친

구와의 관계의 질에서도 조사 되었다. Parker와 Asher(1993)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불만에 대한 느낌과 함께 친한 친구의 존재 여부, 가장 친한 친구 관계의 질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가장 친한 친구 관계의 질적 특성은 아동의 외로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또래 관계가 취약한 아동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는 아동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아동 전기에 비하여 점차 또래 집단과 그들 사이의 문화적 중요성이 대두되어 지고, 부모와 떨어져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Medrich et al., 1982). 이영과 조연순(1991)에 따르면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이 시기 또래 문화의 역동은 부모나 형제 같은 혈육간의 밀접한 관계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외로움이 불안이나 우울,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적응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김현지, 2002; Morrison & Masten, 1991)을 고려하여 생각할 때, 아동 후기 또는 초기 청소년 시기에 또래 관계로부터 경험하는 외로움은 이 전 발달시기들에 비하여 더 많은 위험성을 가질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또래 관계로부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현재 적응이나 미래의 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일까?

최근 아동 후기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라는 두 개의 사회적

관계가 서로 관련되어 있고, 특히 가족 내에서 경험들은 또래 관계를 위한 기초가 되어 줄 수 있다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Hartup, 1992; Parke & Ladd, 1992). 김현지(2002)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은 아동들은 애정적 유대가 낮은 아동들에 비해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면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Maccoen과 Brumagne(1985)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부모임을 언급하였다. 한편 도현심(1996)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외로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후속연구(1998)를 통해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아에게는 어머니의 온정성이, 여아에게는 아버지의 온정성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감은 또래 관계로부터 경험하는 아동의 외로움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요소이며, 이는 즉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감이 또래 관계로 인해 겪게 되는 아동의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래 관계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아동의 외로움에 대하여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중재 효과를 갖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덧붙여, 외로움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들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Cramer & Neyedley(1998)는 외로움은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Marcoen & Brumagne(1985)은 성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는 아동에게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였고, 도현심(1996b)과 오재순(1998)의 국내 연구에서도 외로움에 대한 성차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아동의 외로움의 상호 관계를 검증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함께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또래 관계에서 느끼는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하나의 중재접근으로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라는 긍정적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중재접근의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외로움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또래 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는 아동의 외로움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또래 관계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에 의해 중재되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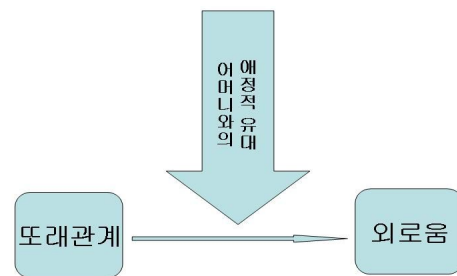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4개의 초등학교에서, 5~6학년 아동 5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을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또래관계에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보다 고학년이 더 민감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김표선, 2004; 도현심, 1999; 최용주, 1992)을 토대로, 다른 변인들과 함께 그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사려 되었기 때문이다. 질문지는 총 610부를 배부하여 587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아동, 무응답과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91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도구

또래 관계 척도

아동의 또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주리(1994)가 제작한 도구 중에서 고학년 아동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모두 세 개의 영역에 하위 척도별로 9, 5, 3개씩 모두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 척도는 정서적지지(반응)영역에 위로, 애정, 충고, 인정, 칭찬 등 5가지, 공동 활동 영역에 함께 놀기, 합

께 지내기 등 2가지가 있으며, 교환적 활동으로는 노동력과 물건 교환의 2가지로 구성된다.

또래 관계의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척도로서 ‘늘 그렇다’(4점), ‘자주 그렇다’(3점), ‘거의 안 그렇다’(2점), ‘전혀 안 그렇다’(1점)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측정 하였고,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더 친밀한 또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고, 하위 변인인 정서적 지지의 신뢰도는 .83, 공동 활동은 .68, 교환적 활동은 .65 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

아동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오현미(2000)가 제작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마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외로움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외로움과 관련된 것은 20문항이다. 그리고 나머지 4문항은 아동의 취미와 관련된 것으로서 검사 참여의 동기 유발을 위해 포함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검사지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유대를 측정

표 1. 또래 관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 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하위 변인	정서적 지지	9	1, 2, 3, 4, 8, 9, 10, 11, 12	.83
	공동 활동	5	13, 14, 15, 16, 17	.68
	교환적 활동	3	5, 6, 7	.65
	전체	17		.87

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를 옥정(1998)이 수정한 개정본(IPPA-R)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인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며, 개정본(IPPA-R)은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유대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유대 척도는 5점 척도로 총 25문항이다. 척도는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고, 부정적인 표현의 문항들은 역 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유대감이 안정됨을 가리킨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또래 환경,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외로움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하였다. 또래환경,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외로움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환경과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또래환경으로 인해 유발되거나 유지되는 외로움을 중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경우 β 값의 기울기를 그림으로 제시

하였다.

결 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외로움의 차이

선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외로움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 -test를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이, 아동의 또래 관계($t = -4.70, p < .001$)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t = -6.24, p < .001$), 교환적 활동($t = -5.15, p < .001$)에서 남·여아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 관계를 맺을 때에 위로, 애정, 충고, 인정, 칭찬과 같은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하고, 친구를 도와주거나 물건을 바꾸는 것과 같은 교환적 활동 역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나 아동의 외로움에 있어서는 남·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외로움과의 관계

아동의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 모두 또래 관계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에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외로움의 차이 검증 남 n=247, 여 n=243

변인	성별	M(SD)	t
또래 환경	남	2.53(.51)	-4.70***
	여	2.73(.47)	
정서적 지지	남	2.24(.56)	-6.24***
	여	2.55(.53)	
공동 활동	남	2.81(.63)	-0.32
	여	2.79(.57)	
교환적 활동	남	2.90(.67)	-5.15***
	여	3.19(.57)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남	3.87(.65)	-1.10
	여	3.93(.70)	
외로움	남	1.52(.52)	0.77
	여	1.49(.45)	

** $p < .01$, *** $p < .001$

표 3. 남, 여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남 n=247, 여 n=243

	1	1-1	1-2	1-3	2	3
남 아	1. 또래 관계					
	1-1. 정서적 지지	.91***				
	1-2. 공동 활동	.80***	.53***			
	1-3. 교환적 활동	.77***	.60**	.52**		
	2.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41***	.40***	.31***	.28***	
	3. 외로움	-.50***	-.47***	-.35***	.39***	-.38***
여 아	1. 또래 관계					
	1-1. 정서적 지지	.92***				
	1-2. 공동 활동	.79***	.54***			
	1-3. 교환적 활동	.76***	.62***	.50***		
	2.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25***	.24***	.16***	.23***	
	3. 외로움	-.35***	-.31***	-.25***	-.34***	-.32***

*** $p < .001$

서 외로움과 $p < .001$ 수준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여아 모두 또래 관계가 더 친밀할수록,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정적 유대를 가질수록,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관계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 관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지지, 공동 활동, 교환적 활동과,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를 독립변인으로 상정하고, 아동의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외로움에 대해, 각 하위요인이 예측하는 정도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아동의 외로움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의 경우 ‘또래의 정서적 지지’가 전체 변량의 23%($\beta = -.29, p < .001$)를 설명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요인이 남아의 외로움에 대하여 4%($\beta = -.22,$

$p < .001$)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 요인이 아동의 외로움에 대해 2%($\beta = -.16, p < .05$)를 설명하였다. 또래의 정서적 지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 이 세 변인들이 남아의 외로움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전체의 29%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남아의 경우, 또래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나 또래와의 공동 활동, 교환적 활동보다 외로움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더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외로움을 예측하는 유의한 설명 요인이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이 여아의 외로움을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19%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은 전체 변량의 12%($\beta = -.22, p < .01$)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와 애정적 유대 요인이 여아의 외로움을 6%($\beta = -.24, p < .001$)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여아의 경우에는 또래와 물건이나 노동력을 직접 교환하면서 또래 관계를 갖는 것이 다른 변인들보다 외로움에 더 큰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단계적 회귀분석

성별	예측변인	B	β	ΔR^2	R^2	F	Total F
남	또래의 정서적 지지	-3.27	-.29***	.23	.23	71.31***	32.17***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17	-.22***	.04	.27	13.93***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	-.13	-.16*	.02	.29	5.78*	
여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	-.17	-.22**	.12	.12	32.29***	18.55***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16	-.24***	.06	.18	18.13***	

* $p < .05$, ** $p < .01$, *** $p < .001$

또래 관계에 따른 외로움에 대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중재효과

아동의 외로움에 대하여, 또래 관계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관련되어 있으므로(<표 2>상관 분석 참조), 또래 관계로부터 느끼는 외로움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의 또래 관계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를 위계적 회귀 분석 1 단계에 투입하고, 2 단계에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아의 경

우 또래 관계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beta=.113, p<.05$), 여아 에게서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수준에 따라 또래 관계로 인한 외로움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또래 관계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남아의 외로움에 대하여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중재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구체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점수 수준을 하위·중위·상위 각 33.3%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세

표 5.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관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또래 관계 ×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1단계	2단계
독립변인		β	β
남아	또래 관계	-.41***	-1.15***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21***	-.80**
	또래 관계 ×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1.13*
	ΔR^2		.02
	R^2	.28	.30
	F	48.13***	34.55***
		1단계	2단계
독립변인		β	β
여아	또래 관계	-.29***	-.58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25***	-.54
	또래 관계 ×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46
	ΔR^2		0
	R^2	.18	.18
	F	26.14***	17.7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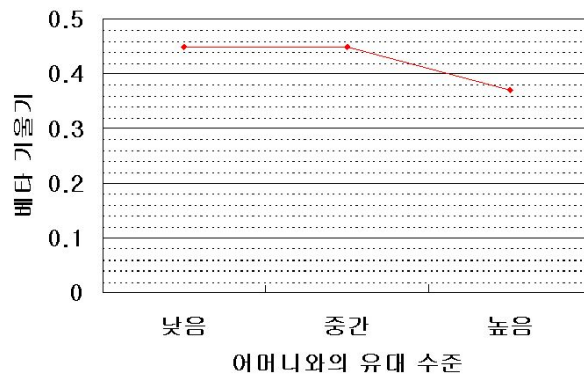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수준에 따른 ,남아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관계의 설명력(β기울기) 변화

집단(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수준에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또래 관계가 외로움을 설명하는 기울기(β)를 도표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수준이 낮은 집단($\beta = -.45, p < .001$)과 중간 집단($\beta = -.45, p < .001$)에서 남아의 또래 관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와의 애정적 수준이 높은 집단($\beta = -.37, p < .001$)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수준이 남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외로움에 대하여 중재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또래 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에 대해 조사하고,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감을 조절함으로써 또래 관계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중재가 가능한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또래 관계로 인해 유발되는 아동의 외로움에 대하여, 상대적 영향력이 있는 중재 요인을 밝히고,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관계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외로움은 성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또래 관계에서의 성차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밀한 방식으로 또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나 교환적 활동을 더 많이 하며, 이는 생일을 기억해 주고, 슬플 때 위로해 주거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찾아주고, 학용품을 빌려주는 등과 같이 ‘친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한편 각 변인의 차이 검증을 통하여 외로움이나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에 있어서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으나(김현지,

1992; 도현심, 1996; Lufiting, 1987), 서론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성차를 보고하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현심, 1996b; 오재순, 1988 오현미, 2000) 역시 많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아동의 외로움이나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성차를 각 변인 개별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후에 기술할 네 번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후속 연구들에서는 외로움의 성차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고찰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로움과 각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또래 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는 남·여아 모두 외로움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여아 모두, 또래 관계(정서적 지지와 교환적 활동, 공동 활동을 많이 할수록)가 좋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고, 어머니와 애정적 유대 관계가 깊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래 환경과 아동의 외로움이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도현심(1996a), 정영인(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와의 유대와 외로움의 관계를 보고한 Asher, Hymel & Renshaw (1984), Asher & Wheeler(1985)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또래 관계가 취약할 때 아동들은 외로움을 더 느끼지만, 반면에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깊으면 외로움을 덜 경험하게 됨으로, 후에 기술할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중재 효과 검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외로움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또래 관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의 설명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외로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또래 관계의 하위 변인이 두개나 포함되었고, 특히 ‘정서적 지지’의 설명력은 전체 설명력의 대부분 차지하였다. 이는 즉 또래 관계가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결정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결과의 <표 2>와 연관지어 유추해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양적으로는 덜 사용하지만, 그 영향력은 양과 상관없이 매우 의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아동 후기에 있어서,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남아를 위한 심리 치료적 접근으로 ‘또래 관계를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 또래 상담과 같은 방법의 효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로, 애정, 충고, 인정, 칭찬과 같은 ‘정서적 지지’를 통한 또래 관계의 접근은 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외로움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요인이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또래와 물건이나 노동력을 서로 주고받는 ‘교환적 활동’은 그 영향력이 전체 설명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여아의 외로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또래 관계의 영향력 비교적 큼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아는 잃어버린 물건을 같이 찾아주거나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학용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교환적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러한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이 여아의 외로움에 있어서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아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외로움을 겪는 여아를 위한 심리 치료적, 혹은 교육적 접근에서는 또래를 활용할 수 있되, ‘보다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을 매개로 하는 방법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본다.

한편, 남·여아 모두에게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는 외로움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비록 그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가 또래 관계보다 작았지만, 이는 또래 관계에 따른 외로움을 중재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를 중재 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또래 관계에 따른 외로움에 대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중재효과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재 변인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중재 효과를 남·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남아에게서만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 보면, 어머니와의 애정적 수준이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서 또래 관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와의 애정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줄었다.

이는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인식한 남자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자기 가치와 낮은 고독감을 보인다고 보고한 Bell과 Longfellow(1983)의 연구,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덜 경험한다는 도현심(1997)의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되어 진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남·여의 결과차이

를 성숙의 속도에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여아들이 보편적으로 남아들보다 빨리 사춘기에 접어들다(Tanner, 1973)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초등학교 5, 6 학년 시기는 평균적으로 여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이고, 남아들은 대부분 아직 아동 후기의 심리적 특성을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시기의 남아에게 있어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은 여아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아들은 초기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 개념 및 정체감과 관련된 개인 내적 변인들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의 보다 예민한 역동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남아에 비하여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도현심(1996)이나 Lobdell & Perlman(1986)의 연구와 같이 아버지, 형제 등의 기타 가족 관계 변인이 역시 개입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므로,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 따른 여아의 외로움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남아의 경우, 또래 관계가 좋지 않을 지라도 어머니와 높은 유대 수준을 갖고 있다면,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또래 관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지는 요즈음,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또래 관계의 역기능 속에서 아동에게 정서적인 지지가 되어주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정서 문제의 한 요인인 외로움을 낮추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일부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문화 환경, 연령에 따른 차이가 세분화 되어 연구 되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 된 배경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의 측면에서 그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 정서 인지 능력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이 외로움을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외로움을 중재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의 중요성을 밝혔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고 어머니와의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치료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한 여러 제한점들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과 상호작용 효과를 밝혔고, 또래 관계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중재 요인을 밝힘으로써, 심리 치료적 개입에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소연 (2001). 사회극이 아동의 외로움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지 (2002).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 및 대인관계 성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표선 (2004). 아동의 또래 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 간 갈등 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 (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간정학회지, 34(6), 1-11.
-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도현심, 박선영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오현미 (2000).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옥 정 (1998). 청소년의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민정 (2000). 초기 부모-자녀 결합형태 및 가족 기능과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수 (200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 아동연구, 16(1), 33-64.
- 이영, 조연순 (1991). 아동의 세계-태내기에서

- 청년기 발달까지. 양서원
- 이주리 (1994). 아동 및 유아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영 (1998).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인 (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용주 (1992).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학교 친구, 학교 외 친구, 형제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A. (1990).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 Bell, B. (1991). Loneliness and Value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4).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ramer, K. M., & Neyedley, K. A. (1998). Sex difference in loneliness: The rol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Sex Roles* [online], 38, 645-653. [Cited 1999.11.13]. <<http://globalumi.com>>. ISSN03600025
- Hartup, W. (1992).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In H. McGurk (Ed),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Contemporary perspectives*. London: Erlbaum.
- Lobdell, J. & Perlman, D. (198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oneliness: A Study of College female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 Luftig, R.L. (1987). Children's loneliness, Perceived ease in making friends and estimated social adequacy: Development and social metacognition. *Child Study Journal*, 17(1), 35-53.
- Mascoen, A. & Brumagne, M. (1985). Loneliness among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25-1031.
- Medrich E. A., Roizen, J. A., Rubin, V., & Buckely, S. (1982). *The serious business of growing up*.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rrison, A. & Masten. K. A. (1991). Health consequence of loneliness in adolescent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6, 23-31.
- Parke, R., & Ladd, G. (1992).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 In L. A. Peplau, & D. Perman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18. New York: Wiley.
- Tanner, J. M.(1973). Growing up. *Scientific American*, 229(3), 35-43.
- 원 고 접 수 일 : 2005. 12.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 18
게 재 결 정 일 : 2006. 2. 2

K C I

The Influence Having Peer Relationships and Affectionate Relationships with the Mother Had on Children's Loneliness

You Jin Chung

Kwang Woong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having peer relationships and affectionate relationships with the mother had on children's loneliness. The participants were 491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in Seoul and the Kyonggi province. As part of the data analysi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statistical procedures were used: Pearson's correlation, *t*-test, stepwis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revealed that both peer relationships and affectionate relationships with the mother were inversely related to children's level of loneliness. Specifically, for boys, peers' emotional support influenced the most whereas for girls, exchanging activities among peers had the most impact. In addition, for boys, having an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loneliness.

Key words : affectionate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children's loneliness

부록 1. 또래 관계 척도

*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과 친구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나의 경우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해 주세요.

질 문 내 용	전혀 안그렇다	거의 안그렇다	자주 그렇다	늘 그렇다
1. 내가 아플 때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병문안 와준다.	1	2	3	4
2. 내가 슬플 때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	1	2	3	4
3. 내 친구들은 내 생일을 기억해 준다.	1	2	3	4
4. 내가 잘못할 때는 친구가 충고해 주곤 한다.	1	2	3	4
5.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 준다.	1	2	3	4
6. 내 친구들은 먹을 것을 내게 나눠준다.	1	2	3	4
7. 내 친구들은 학용품을 내게 빌려준다.	1	2	3	4
8. 내 친구들은 내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1	2	3	4
9. 내가 잘 했을 때는 친구들이 칭찬한다.	1	2	3	4
10. 내가 반장이나 학급 임원으로 나가면 찍어 줄 친구들이 많다.	1	2	3	4
11. 내가 말하면 친구들은 좋다고들 한다.	1	2	3	4
12. 내 친구들은 나의 좋은 점을 알아준다.	1	2	3	4
13. 나는 친구 집에 놀러간다.	1	2	3	4
14. 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놀이를 한다.	1	2	3	4
15. 내 친구가 싸울 때, 나는 잘 말린다.	1	2	3	4
16. 나는 친구와 함께 사먹기도 하고 문방구에도 같이 간다.	1	2	3	4
17. 나는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한다.	1	2	3	4